

자동차 관련 용어의 수용 양상과 정립의 필요성 Study on the Acceptance and Establishment of Automobile Terminology

채영희* · 신명호** · 이연원***†

Young-Hee Chae*, Myung-Ho Shin** and Yeon-Won Lee***†

(접수일 : 2013년 5월 8일, 수정일 : 2013년 5월 24일, 채택확정 : 2013년 5월 25일)

Abstract: As the Western technologies have been introduced to our culture since the modern age. We have uncritically accepted Japanese style terminology for new things without reflection on the relations of concept, language and fact. Concept is the basis of human thinking and also a criterion of distinguishing what we see and hear. Thus, establishment of concept and naming are important once new technologies or objects are created. In the study, we will take automobile terminology which is relatively familiar to us for example in order to explain the importance of naming. We will reflect our reality where the Japanese style terminology and English style terminology for the automobile components and structures are mixed up and urge the need of establishing the easier terminology. Reorganizing the terminology is also important but automotive engineers and linguists need to work together on ways to translate the terminology into easier ones for common people.

Key Words : Terminology for automobile parts, Terminology, Technical terms, Conceptual terms

1. 서 론

최근 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학문의 발전과 분화 역시 가속화 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용어가 유입되고 생성되고 있다. 근대 이전에는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선진문물에 대한 이름 짓기가 한자어로 개념화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근대 이후는 일본을 통한 기술 유입으로 일본 학자들이 만든 용어를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우

리의 근대는 우리 힘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된 것이어서 근대 새로운 문물 수용 태도가 자주적이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는 근대에는 서구의 용어를 일본이 번역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었다면 지금도 서구의 용어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가 하는 점이다.

자국의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입되는 개

*** 이연원(교신저자) : 부경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E-mail : ywlee@pknu.ac.kr, Tel : 051-629-6162

*채영희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mail : chaeyh@pknu.ac.kr, Tel : 051-629-5415

**신명호 : 부경대학교 사학과

E-mail : smh@pknu.ac.kr, Tel : 051-629-5431

*** Yeon-Won Lee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utomotive Engineering, Pukong National University.

E-mail : ywlee@pknu.ac.kr, Tel : 051-629-6162

*Young-Hee Chae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Pukong National University.

E-mail : chaeyh@pknu.ac.kr, Tel : 051-629-5415

**Myung-Ho Shin :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E-mail : smh@pknu.ac.kr, Tel : 051-629-5431

념어에 대한 일고의 반성도 없이 서구의 이론과 기술 용어를 음가대로 표기하는 방법에서 오는 용어의 정체성 혼란과 주제성 상실에 대한 반성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글은 근대 우리가 자동차 용어를 수용한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기 위한 다짐이기도 하다. 또한 일상 언어와 대립되는 자동차 관련 용어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문제 삼고 싶다.

2. 근대 자동차 광고에 나타난 자동차 용어

근대 조선에 최초로 자동차가 들어 온 시기를 이민원(2001)¹⁾에 의하면 1900년 9월30일 경인 철도 회사의 주선에 의해 먼저 왕실에 승용차가 들어 왔다고 되어있지만, 1905년 덕수궁에 불이 나서 이 때 들어 온 자동차는 전소되었고, 이후 1911년 이왕직과 총독부에서 미국산 포드 승용차를 구입하여 고종이 탔다는 기록이 있다. 순종은 미국산 캐딜락을 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특수층의 사람들만 영업용 승용차를 이용하였고 대다수 상류층은 인력거를 탔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차를 탄 것으로 되어 있다.

(1) 꺼멓고 짐채같이 큰 수레에 네 바퀴에 기둥같은 테가 있고 뽕뽕하면 가고 뽕뽕하면 서되 이것이 칠팔명의 사람을 싣고 높은 언덕을 총알같이 길로 달리되 대체 이것이 무엇이나. 그것이 요술차이나 신통차나 제갈공명의 목우유마와 같은 것이나

(1)은 1917년 5월16일 <매일신보>에 ‘자동차와 향인(향인)’이라는 글의 일부이다. 당시 자동차를 처음 본 사람들의 반응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자동차’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어디인지 밝히기 어려우나 1915년 7월22일자 조선 총독부 관보에 등장하고 있다. 스스로 가는 차라는 의미의 용어를 그 당시 수용한 결과이다. 이후 <조선일보>에 자동차 관련 광고가 많이 실리는데 그 양

상을 보이면 (2)와 같다. (2)는 1926년 8월 18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광고의 내용이다.

(2) 「포-드」는 眞實노 完全한 自動車 改良 「포-드」幌型 自動車는 眞實노 安全하고 不足함이 업는 乘用車이올시다. 走行은 輕快하게 安全하게 되고 또 費用은 걸니 지 안는 것은 世界的으로 承認을 바듭니다. 車體는 舊形보다도 훨씬 길고 座席은 얇고 便宜하야 長途의 乘車에도 疲勞를 感하지 안습니다. 이 優良車를 아시는 바와 갖흔 廉價로 提供하는 것은 全히 有史以來로 新例가 됩니다.

이 광고에서 ‘황형 자동차’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황형’이라는 단어는 현재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이고 그 의미는 덮개 혹은 포장이 있는 자동차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3) 水壓式 震動 抹消器 新 포-드의 優秀한 機構 新 포-드 車를 타보신 이는 其 탈 맛 조흔데 누구든지 놀내실 것임니다. 그것은 四 箇의 水壓式 震動 抹消器가 裝置되었기 對問입니다.

여러분은 西洋扉의 緩衝器를 아실 것임니다. 이 震動 抹消器는 그것과 非常히 酷似하여 푸링, 發條의 跳躍에 對하야 緩和 作用을 行합니다.

또 高速度로 曲角을 轉回할 새, 生하는 危險한 橫搖를 防止하고 四輪을 路面에 密着시켜, 兪더한 惡路에도 牽引은 極히 正確하야, 부테-키의 作用에 不同이 일지 안는 것도 이 抹消器의 恩澤임니다. (조선일보 1929년 02월 17일)

(4) 四分之三 反動式 操舵 齒輪 新 포-드의 優秀한 機構

- 型式 四分之三 反動式으로 著名한 위-口及 세타-型
- 構造 特別의 熱處理를 施하야 가장 入念 精巧히 機械로 만드른 頑大한 鍛鋼鐵製
- 調整 其 簡單한 設計 對問에 殆히 調整의 必要는 업고 或間 必要한 새에도 容易 迅速히 行할 수 잇습니다.

· 特徴 粗惡한 路面을 走行할 時에도 操舵輪에 輕少히 손을 대여도 前車輪을 眞值히 保持하며 또 路面에 落着시하며 또 衝動을 만나여도 조금도 操縱者의 손에 反動치 않습니다.

· 其他 格安車에 잇서서 使用하는 것은 新 포-드가 嚆矢입니다.

新 포-드 車 포-더 세단 型 定價 金 二千七百五十圓 也 (조선일보 1929년 02월 24일)

(3)의 ‘수압식 진동 말소기’라는 용어나 (4)의 ‘반동식 조타 치륜’이 의미하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에 비해 (5)와 (6)의 ‘사기통차나 ‘발동기’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5) 簡單하고 經濟的인 新 포-드 四汽筒車

信賴 嚴選한 材料와 精巧한 工程을 經하여 製造함으로 經濟-四汽筒인 故로 燃料의 消費量은 僅少하게 됩니다.

簡單-發動機 中の 磨滅이 되거나 故障이 생기는 部分의 數가 적게 되었습니다.(조선일보 1929년 06월 08일)

(6) 壹噸半積 新 포-드 투럭크

여러 가지 特徵을 具備하여 잇기 對問에 發賣以來 非常히 好評을 傳하고 잇는 新 포-드 투럭크의 配給이 一層 潤澤하여 졌습니다. 願하오니 最寄의 特約 販賣店에 用命하십시오.

特徵 二三/ 新式 鋼鐵車輪/六制動裝置/堅牢한 車柱 強力한 發動機/ 燃料의 經濟(조선일보1929년06월23일)

위의 (2)에서 (6)은 신문 광고에 사용된 자동차 관련 용어들에서 근대 국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몇몇 어휘는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우리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말들이 많다. 이것은 우리가 근대시기에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에 일본이 번역한 외국의 개념을 정체성에 대한 자각 없이 언어화 한 예가 된다.

(7) 레인지로버 이보크와 함께 쓰는 2.0 터보 엔진은 XF와 XJ의 커다란 차체를 가볍게 이끈다. 재규어는 이 엔진을 최대한 작게 만드는 한편 알루미늄 재질을 듬뿍 써서 터빈과 인터쿨러를 포함한 엔진 무게를 130kg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이 엔진을 얹은 XF와 XJ는 기존 V6 모델보다 코너에서 훨씬 가볍게 앞머리를 움직일 수 있다. 연료분사 방식은 직접분사방식을 썼기에 연료량 제어가 꼼꼼하고, 밸런스 샤프트를 두 개 달아 툄틀대는 진동을 줄였다. 재규어 2.0 터보 엔진은 5,500rpm에서 최고출력 240마력을 내고 2,000~4,000rpm 사이의 넓은 영역에서 34.7kg·m의 풍성한 토크를 뽑아낸다. (2013 자동차 생활; 전상현기자 시승기)2)

(7)은 최근의 재규어 자동차를 탄 기자의 시승기 일부분이다. 한국어 문장에 외래어가 함께 작성된 것이다. (7)의 글을 읽으면서 한국어가 신라시대 이두처럼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된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글뿐만이 아니다.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대부분이 이러한 문장구조로 기술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학문의 이중적 현실을 보여주는 예이다. 아마도 대다수의 이공계 수업 교수자는 용어 번역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와 같이 한국어보다는 외국어로 수업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영어 수업을 권장하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인해 우리말로 학문하기는 점점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우리는 서구에서 유입된 새로운 신지식과 기술을 우리의 것으로 전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우리의 모국어어를 더욱 풍부하게 하여 사유의 폭을 넓혀나가는 일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된다. 서구에서 들어온 과학 기술 용어를 무조건 수용하는 태도보다 우리 현실에 맞는 용어 정립과 신기술 유입에 따른 정확한 번역의 작업을 거쳐야 했다.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용어 정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 되어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영역의 학문과의 융합을 모색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발표된 국어기본법(법률 제7368호)에는 전문 용어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고 그와 관련된 시행령(대통령령 제18973호)이 공포되었다.

전문용어는 학술 분야 또는 특정 직업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어휘이지만 이들 어휘가 국민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영역까지 확대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이에 ‘국어 기본법 제17조’와 ‘시행령 12조’에서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문용어 표준화의 절차와 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이후 21세기 세종 계획(1998-2007), 국어 발전 기본 계획(2007-2011) 등을 통한 전문용어 정비와 전문용어 표준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이는 단순히 각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용어의 통일을 이루어 개념 전달에 착오가 없도록 하자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언어 생활에서 전문 용어가 정확하고 쉽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3. 자동차 관련 용어 표준화의 필요성

ISO 1087-1에 의하면 전문용어를 ‘한 전문 분야에 속하는 일반 개념에 대한 언어 명칭’이라고 정의하고 용어 정리 작업은 용어의 개념과 그 체계를 세우기 위한 기본 작업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개념은 인간의 사고에 근간이 되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기술이나 사물이 생성되면 새로운 장르에 대한 개념규정과 이름 짓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의 개념과 사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언어적 실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물에 정확한 개념을 규정하고 거기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는 지적 행위가 국가적 위신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 (8) 자동차 구매 계약서의 기본 품목
- 파워트레인: 세타 11 2.0 가솔린 엔진
- 외관사양: 205/65R16타이어 & 알로이 휠루프

라인 크롬 가니시, 프로젝션 헤드램프, 틸티드 글라스, 안개등 측면 방향 지시등, 에어로 타입 와이퍼

- 안전 사양: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HAC), 급제동 경보 시스템(ESS), 속도 감응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 웰컴 시스템, 윈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등

(8)에 사용된 어휘들은 일반인 대상 자동차 구매 계약서의 일부 내용이다. 안전사양에 대한 용어는 어느 정도 우리말로 되어 있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으나, 그 외 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많다. 일반인 대상 자동차 계약서가 이러하다면 연구용 전문용어는 어느 정도일지 그 수준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한중일 자동차 용어를 비교해 보면 한국과 일본은 영어식 표기 그대로를 자신의 언어로 전사 한 것인데 반해 중국은 자국어로 번역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표1>에서 알 수 있다.

Table 1 Comparison of terminology for automobile parts among Korean Japanese, English and Chinese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1	클러치	クラッチ	Clutch	离合器
2	트랜스미션	トランスミッション 変換器(へんあつき)	Transmission	变速器
3	디퍼렌셜 기어	デフギヤ/差動装置 (さどうそうち)	Differential gear	差速齿轮
4	배터리	バッテリー/電池(でんち)	Battery	电瓶
5	스파크 플러그	点火プラグ(てんかぶらぐ)	Spark plug	火花塞
6	냉각 팬	冷却ファン(れいきゃく)	Cooling fan	冷却风扇
7	라디에이터	ラジエーター	Radiator	散热器
8	워터 펌프	ウォーターポンプ/冷却ポンプ(れいきゃくぼんぷ)	Water pump	水泵
9	스티어링 휠	ハンドル(ステアリングホイール)	Steering wheel	转向盘
10	너클 암	ナックルアーム(ステアリングアーム)	Knuckle arm	转向节臂
11	피트먼 암	ピットマンアーム	Pitman arm	转向摇臂
12	드래그 링크	ドラッグリンク/引棒	Drag link	直拉杆
13	타이로드	タイロッド/引張り棒(ひっぱりぼう)	Tie rod	转向横拉杆
14	랙&피니언	ラック&ピニオン	Rack & Pinion	大齿轮和小齿

		(大歯車&小歯車)		轮
15	속업소버	ショックアブソーバー/緩衝器(かんしょうき)	Shock absorber	減振器
16	토션 바	トーションバー/ねじ棒	Torsion bar	扭杆
17	리프 스프링	リーフスプリング/板ばね(いたばね)	Leaf spring	板簧
18	토크	トルク	Torque	扭矩
19	마력	馬力(ばりき)	Horse power	马力
20	배기량	排気量(はいきりょう)	Displacement	排气量
21	노킹	ノッキング	Knocking	爆燃
22	실린더 헤드	シリンダーヘッド	Cylinder head	缸盖
23	실린더 블록	シリンダーブロック	Cylinder block	缸体
24	오일 팬	オイルパン/油受け皿(あぶらうけざら)	Oil pan	油盘
25	크랭크 축	クランク軸(じく)クランクシャフト	Crank shaft	曲轴
26	커넥팅 로드	コネクティングロッド(連接棒)	Connecting rod	连杆
27	피스톤	ピストン	Piston	活塞
28	캠	カム	Cam	凸轮
29	밸브	バルブ	Valve	气门
30	캘리퍼	カリパス/ノギス	Caliper	卡钳
31	브레이크 패드	ブレーキパッド	Brake pad	制动衬块
32	디스크 로터	円盤羽根車(えんばんはねぐるま)	Disk rotor	转动盘
33	사이드 브레이크	駐車ブレーキ/パーキングブレーキ/ハンドブレーキ	Parking brake	驻车制动器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우리나라 자동차 용어를 학교와 대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자동차 정비와 운수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서로 통일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자동차 용어사전(1988)을 발간하여 우리말 정립과 용어의 표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공업의 발달과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고 이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자동차 용어 대사전(2005)을 편찬한 바 있다.³⁾

학술단체 연합회(2007)에서는 ‘표준화’의 개념을 ‘해당 분야와 관련한 전문가들 사이에 정확하고 명시적이며 용이하게 지식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용어의 통일성 및 단일화를 장려하는 활동’이라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는 한 용어가 다른 형태의 용어들에 비해 그 사용에 우위에 있음

을 규정하는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며, 국제적으로는 상품, 서비스 등의 규격 조건이나 특징을 기술하기 위해 국제 조직이 권장 용어를 규정 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자생적 차원으로는 용어체계가 사용자들의 합의에 의해 스스로 정비되고 조정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음을 규정한 바 있다⁴⁾. 따라서 자동차 관련 전문 용어도 <표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외래어 전사와 같은 표기 방법을 우리식 언어로 표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어떤 용어가 국가가 정하는 표준 용어로 정해지고 이 용어가 국제화의 절차를 거쳐 전문용어로서의 자생력을 가지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석주(2006)에서는 전문용어 정리 작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전문지식의 전달, 전문용어의 기본 어휘 교육, 번역과 통역, 언어의 정비, 학술적 글쓰기의 필요성 등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⁵⁾

유럽,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용어 정비의 필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오랜 전통 속에서 전문용어의 정비 작업에 대한 기술을 축적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전문용어에 대한 기반이 미비하다. 따라서 지식 정보화 사회의 효율적인 정보 유통을 위해 용어 정비는 국가 산업으로 인식해야 하고 새로운 용어의 생성과 확산을 위한 전문용어 관리시스템의 확립과 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 학문 분야에 대한 대중 접근성을 위한 용어 정보 검색 서비스 구축도 고려해야 하며 학문 분야에 따른 용어 특성을 연구하여 기술 번역의 문제와 국제 특허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 인력 양성 시급하다 할 것이다.

한 국가가 사용하는 전문용어의 정비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효율적인 정보의 교환과 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정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야만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가능한 것인데 현재 우리사회는 다양한 용어들을 학회와 학자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최기선(2005)에서 전문용어 정비 1-2단계 사업을 통해 몇몇 분야의 전문용어를 정비하였으며 3단계(2004-2007년)사업에서 기초 기술 공학 분야의 용어를 대상으로 서비스 관리 및 관리체계 자동차

기반 조성 사업을 한 적이 있다.⁶⁾

이와 같이 전문용어 정비 작업이 수행되기는 했지만 용어 사용을 위한 강제성의 결여와 인식의 부족으로 학계에서는 여전히 학문 분야 별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이들의 연구 성과물을 엮는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과학과 산업 기술 분야를 이어주는 사업으로의 확장을 위한 도구개발이 절실하다.

4. 과학 기술 전문 용어 정리의 국내외 사례

서구 및 일본, 중국 등에서는 ‘전문용어학’ 또는 ‘전문용어론’이 자립적인 학문 분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문 용어에 대한 연구가 언어 정비의 차원, 언어 기술의 차원, 언어 처리의 차원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4.1 국내 전문용어 연구와 정리 사례

과학기술 발달 진원지가 서구이므로 당연히 용어가 서구 언어를 근간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유입된 용어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언어이든지 서구어로부터 번역되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모든 문물을 중국으로부터 수용하였으며, 개화기 이후 일본을 통하여 과학기술을 수입하게 되었으므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식 용어를 사용하였다. 특히 대중 교육과 과학기술이 식민지 시대부터 비롯되었고, 해방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일본어로 된 용어를 음과 토를 바꾸어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초중고 교과서와 모든 출판물에 이러한 용어가 표준이 되어 사용되었다.

해방 후의 혼란기와 6.25 전란 기간은 정부와 학계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쏟을 겨를이 없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학회가 자기 학문분야의 용어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여 학회의 기구로서 용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각 분야별 학회들의 용어심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각각의 용어집을 발간하게 되면서 이들을 통합한 과학기술용어집이 1976년에 과학기술처의 재정

보조를 받은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 의해서 발간되었다. 그리고 1978년에는 의학용어만을 수록한 제2집이 출간되었다. 이때부터 과학기술용어가 범 학회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게 된다. 그것은 한 가지 개념을 학회에 따라 서로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통일된 용어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학회마다 용어 제정의 원칙이 달라 여러 문제를 내포하게 되었다.

학술단체 연합회는 전문 용어 정비 사업을 2003년 12월부터 총 58개 분야에 걸쳐 용어 표준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18개 분야가 완료되었으며 완료된 용어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⁷⁾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용어의 제정과 보급 문제가 국가기관 또는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며 교육과학기술부는 학회의 관련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용어집 발간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정도이고, 문화관광부는 전문용어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을 한국과학기술원 산하에 두고 이를 지원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하지 못한 용어정리의 필요성을 과학기술분야의 여러 학회가 자발적으로 진행하여 그 성과를 내어놓고 있다.

한국 물리학회는 1977년에 ‘물리학 용어심의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물리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우리말 용어를 심의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해방이후 일본어 용어들을 우리의 음으로 바꿔 사용하여 왔는데 이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새로 생겨난 용어의 제정, 구리고 원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의 로마자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 연구하여 학회의 공식적 논의를 거쳐 용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91년도에 구성된 용어심의위원회는 용어집을 개발하면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서구어는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쓰되, 이미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어 우리말처럼 쓰이고 있는 용어를 구태여 순 한글 용어를 새로 개발하여 바꾸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였다. 아울러 인접 학문 분야에서 사용 빈도가 더 높은 용어로서, 물리학 용어집의 용어가 그 분야 학회의 용어보다 특별히 낮다

고 생각되는 이유가 없다면, 그 학회의 용어를 존중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각각의 용어를 정리하고 이들을 한국 물리화학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하였다.⁸⁾

대한화학회는 1946년에 창립된 학회로 1951년부터 화학술어 제정 사업을 추진해왔다. 화학회는 물리화학회의 ‘용어’ 대신 ‘술어’라 하고 현재까지 4차에 걸쳐 화학 술어집을 발행했고, 1980년부터는 화학물 명명법도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화합물의 우리말 이름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서 IUPAC의 명명법 체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동시에 우리사회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화합물의 이름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합물의 이름을 ‘국제순수 및 응용화학 연합’(IUPAC)이라는 국제기구에서 회원국 화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였다. 1996년의 대한화학회 창립 50주년의 사업의 하나로 화학술어집 제 5판의 발간을 위한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고, 세부 분야별 대상 술어의 선정을 마친 상태이다. 1997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화학술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다.⁹⁾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994년에 과학기술용어의 통일 사업을 시작하면서 각 분야의 회원들 13인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용어 통일 위원회’를 설치하여 1998년 3월까지 25회의 회의를 거쳐 ‘과학기술 용어사전’을 발간하였다. 이들은 당시까지 각 전문학회 별로 발간된 용어집을 전부 수집하여 입력한 후 검토를 거쳐 이를 해당분야학회로 보내 제심의를 요청하였다. 당시까지 용어집이 발간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1976년에 발간한 ‘과학기술 용어집’에 수록된 것들을 해당학회에서 검토하도록 의뢰하였다. 이러한 학회들의 심의를 마친 용어들을 수집, 검토한 후 60여 학회가 참가한 1회의 공청회 및 설명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22만여의 용어를 수록하여 용어사전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이후 1단계 결과물로 1998년 발간한 ‘영한/한영 과학기술 용어집’의 22만 용어 수록한 내용 중 이학부, 공학부, 농수산학부, 의약학부 전문위원회 30여명이 초벌 번역한 4개 이상의 학회

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간추려 교육부 편수자료인 ‘기초 과학편’과 일부 ‘응용 과학편’의 실린 내용 표준화 한 2단계 ‘핵심 과학기술 용어집’(2005)발간하였다.

1998년에 문화관광부(국어연구원) 지정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산하에 ‘전문용어 공학센터’가 설립되어 과학기술용어를 포함한 전문 용어에 대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 설립목적은 보면, 전문가 사이의 의사소통과 지식 이전을 위하여 전문용어 분야의 협조 진작을 도모하고 다기능적 전문용어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제 정보사회에 있어서 효율적, 표준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국내 및 국제적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창립 이후 전문용어에 관련한 여러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수차례 걸친 전문용어 언어공학 심포지움 등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용어연구’라는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으나, 전문용어의 통일화 작업이 그 활동의 기초가 된 것이라기보다는 다만 각 전문가 집단의 연계를 위하여 전산화를 추진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들 학회의 용어 제정사업에서 과학기술계 학회들의 용어제정 활동에서 통일성과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각 학회는 그 용어심사와 제정 작업을 그 분야의 용어에 한해서 시행하였고 그 학회의 회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수행하였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남았다. 그리고 여러 학회들이 서로 다른 원칙과 방법을 채택하여 전문 용어 정비 작업을 진행하게 되어 제정 방법과 원칙의 차이로 인해 국가 과학기술 정보화 정책 수립에 문제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기초과학분야의 연구 결과를 기술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용어 장벽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 지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학문 분야별 전문용어의 제정 방법과 원칙이 정해지고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법이 모색되기를 바란다.

4.2 국외 전문 용어 정리 사례

일본은 1920년대부터 정부차원의 전문용어표준화를 시작하였고, 종전 후에는 문부성이 본격적으

로 사업을 추진하여 1954년에 일본 과학용어 전집을 출간하고 있다. 또 중국은 1980년부터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서 최고 권위의 학자와 책임행정가들을 동원하여 용어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전문용어와 관계된 개념 및 용어로 ‘전문어, 직업어, 집단어, 학자어, 학술어, 학술 용어, 위상어, 술어’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9)직업어, 전문어: 위상어의 일종으로 특정의 직업의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직업어라고 하고, 전문이 같은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전문어라고 한다. 넓게 말하면 직업어도 전문어에 넣을 수 있지만 직업어와 구별하는 경우, 예술가, 학자, 법률가 등 지적 직업에 관계된 언어를 전문어라고 한다. 학자어라고도 부르지만 여기에는 예술가의 언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어 보다 좁은 용법이다.¹⁰⁾ (國語學 研究事典 1977. 明治書店)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민간 주도의 특수어 사전 편찬 형태의 전문용어 연구 역사가 길고 지금도 분야별 전문용어가 특수어 사전 형태로 정리되고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과학기술을 서구로부터 도입하여 정착시켰다. 19세기 중반에 동경대학을 설립하고 유럽 대학 교수들을 초빙하고 실험시설을 도입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고등교육을 질 높게 시작하였고, 영어 또는 독일어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교수요원을 양성하고 일본어 용어를 점차 제정해가는 과정을 밟았고, 1887년에 발간된 Japanese journal of Mathematics(Tokyo Sugaaku Kaisha Zassi)는 과학기술용어와 그 정의가 표준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학계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1891년에는 화학전문용어집(Glossary of chemistry), 1904년에는 전기공학 용어집 (Terms of Electrical Engineering), 1914년에는 기계공학 용어집(Terms of Mechanical Engineering), 1919년에는 영일 건축용어집(English - Japanese Vocabulary of Architecture)이 각각 발간되었다.

1931년에는 기술전문용어표준화위원회가 12개 학회의 참여로 발족되어 그 성과로 1939년에는 Applied Mechanics Terminology가 표준화된 3793개의 전문용어를 수록하여 발간하였다. 한편, 일본 정부내에서는 1920년대에 산업표준화 기구 산하에 설치된 소위원회가 일본 공학표준(Japanese Engineering Standards, JES)에 사용되는 기술용어의 표준화를 담당하였다. 또, 정부가 1930년에는 자원 분야의 표준화에 착수하였고, 또 1931년에는 의약품 전문용어집, 1939년까지는 연료, 도로, 기계, 금속 및 광석, 전기 관련 표준 전문용어가 정부의 자원부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1941년부터는 일본의 과학기술단체연합이 과학기술 전 분야의 전문용어표준화작업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는데 여기에는 모든 학술단체와 기구들이 참여하며 사업을 전개하여 제 2차 대전 종전까지 진행되었다.

종전 후에는 1947년에 정부의 교육, 과학 및 문화부가 과학기술용어 표준화사업에 착수하여 1954년에는, 수학, 물리학, 동물학, 토목공학, 광산 및 야금학의 5개 분야의 용어를 수록한 일본과학용어전집(Japanese Scientific Terms)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0권의 전집에 총 138,000개의 표준화된 용어를 수록 발간하고, 이 용어들은 정부의 공식문서, 학교 교과서, 특허 설명서, 및 일본 산업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일본 과학용어전집은 일본의 과학기술용어의 표준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에 수록되지 않은 용어들이 아직 상당히 남아 있어서 계속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또, 일본 문부성은 1953년까지 의학분야 전문용어의 표준화 작업을 착수하였고, 1975년에 일본 의학 전문용어집이 출간되었는데, 1980년까지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으며 의학전문용어 데이터 베이스가 1991년에 구축되어 117,000개의 용어를 수록하는 등, 계속적인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까지 총 32개 분야 학술 용어집 발간되었으며 그 중 25개 분야는 국립 정보학 연구소의 온라인 학술 용어집에서 검색가능하며 문부과학성 학술 심의회의 학술 용어 분과회의 ‘학술용어 정비 사업’ 과 산업통상성 일본 규격 협회의 ‘기술용어 표준화 사업’등을 통해 전문용어 정비 작업

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도 이후에 과학기술용어를 위시한 전문용어의 제정 및 표준화에 국가적 차원의 정력을 쏟고 있으며, China National Committee for Terms in Science and Technologies (CNSTST) (중국 국가 과학기술용어 위원회), China National Technical Committee for Terminology Standardization (CNTCTS) (중국 전문용어 표준화 기술 위원회), China Term Net이 용어 정리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국가 과학기술용어 위원회 (CNSTST)는 1985년에 국무원 비준으로 설립되었으며 중국정부 대행으로 과학기술용어의 심사 제정 및 보급을 담당하고, 52개의 소위원회(과학, 공학, 농학, 의학 및 기타 연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1700명 이상의 학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중 10%인 170명 정도가 중국과학원 및 중국 기술원 소속 학자들이다. 지금까지 41개 분야의 용어가 조사 완료되었고, 33개 분야의 용어가 보급되었는데, 그중 9개 분야의 용어는 해외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원래의 정자(약자화하기 이전의 문자)로 표기되었다.

중국 전문용어 표준화 기술 위원회(CNTCTS)도 위의 과학기술 용어 위원회와 함께 1985년에 설립되었고, 중국 기술 감독국(China State Bureau of Technical Supervision)에 소속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지도하고 조정한다. 4개의 분과별 소위원회, 즉 전문용어학 이론 및 응용을 담당하는 제 1분과와 사전학 (Lexicography) 담당의 제 2분과, 컴퓨터 보조 전문용어학 (Computer-aided Terminology) 담당의 제 3분과, 소수 민족어 전문 용어학 담당의 제 4분과로 사업을 진행한다. 사무국을 중국 표준화 정보분류 및 코드화 연구소 (China Standardization and Information Classifying and Coding Institute - CSICCI)에 두고 있으며,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CSICCI에서, 부위원장은 국민위원회,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중국 과학기술 용어 위원회, 중국 출판관리위원회 및 국방기술산업원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하여 국가의 전 기관과 모든 분야의 전문용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hina Term Net은 1993년에 국무원 비준으로 설립되었으며, 8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을 CSICCI에 두고, 위원장은 CSICCI, 부위원장은 국가언어위원회, 국가과학기술용어위원회 및 백과사전 출판사에서 각각 1인씩 선임된다. 그 활동영역은 전문용어 과제조정, 의사 소통 해결 및 자문, 위원 상호간의 협력 및 교환을 국내외적으로 증진하는 일과 교육 프로그램의 조직 및 출판사업을 총괄한다. 이와 같이 이 기관은 위에서 언급한 두 기관을 위시한 전문용어 관련 기관들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세 기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전문용어 관련 사업은 모두 국가적 차원의 권위를 인정받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업의 추진 결과도 신속히 시행 보급 되고 있다. 전문용어의 표준화, 사전 구축 및 전문용어 데이터 베이스 발전을 위한 원칙 및 방법론에 대한 일련의 국가 표준이 준비되었고, 800개의 전문용어 표준과 100,000개의 전문용어가 국가기술 감독위원회에 의해 보급되었다. 1995년에는 소수민족어 전문용어소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1996년에는 조선어(한국어) 세부위원회가 발족되어 전문용어 및 표준화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있다.¹¹⁾

프랑스 전문 용어 정비 작업의 특징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언어 계획(dirigisme linguistique)이라는 점이다. 프랑스는 계획적인 언어 정책이 자국어론 진흥, 발전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문 용어 작업의 주요 쟁점을 영어 용어의 남용을 줄이고 자국어 용어로 대체시키는 작업이 주요 목적이 되었다. 제안된 용어는 계획 언어 정책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의 전파 및 실용화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과 제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용어 위원회가 선정한 공식 용어는 프랑스나 국외에 존재하는 수많은 각종 위원회의 의견 및 제안을 최대한 조사하고 검토하여 수용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용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software’의 불어 용어를 선정하는 데에 150개의 후보 용어가 제안되었는데, 국제 프랑스어 위원회(CILF)와 프랑스 학술원에 각각 자문을 구하였다.

국제 프랑스어 위원회는 이 중에서 22개의 용어를 대상으로 동기성, 적합성, 파생성, 수용성, 용이성의 5가지 기준으로 검토한다.¹²⁾

캐나다의 경우 제도적 이중 언어 체계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번역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 캐나다는 ‘번역원’이라는 행정 부처를 두었으며, 캐나다의 용어 작업은 번역에 그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번역원은 모든 공식 문서와 전문 용어의 영어-프랑스어, 프랑스어-영어 번역을 담당하고 용어 은행인 ‘TERMIUM’의 지속적 개발 및 증보, 용어와 용어학 관련 편찬 사업, 용어에 대한 자문 역할과 용어 표준화 사업을 수행한다. ‘TERMIUM’은 퀘벡의 용어 은행(BTQ)과 더불어 가장 규모가 큰 용어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이다. 오타와 대학이 개발한 것을 후에 캐나다 정부가 사들인, 1600개의 전문 영역을 망라한 대규모 자료인데, 이것은 BTQ와 달리 유료로 제공된다.¹³⁾

유럽은 유럽 연합 전문용어 데이터 베이스(EURODICAUTOM)를 구축하고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틴어, 스웨덴어, 영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등 12개 언어로 이루어진 다언어 전문용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유럽 연합국들이 지식을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용어 대응어를 제공해 주고 있다.¹⁴⁾

5. 선진 과학 기술 수용과 자국기술 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다종목 간의 학제적 융합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미 제품기술의 융복합화는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학문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분야의 관련 기술의 역할과 연구의 전반적 흐름을 주시하지 않고는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 한국어어를 사용하는 학자라 하더라도 연구영역별 사용하는 전문 용어의 상이함을 넘어서기는 힘들다. 이를 위해 각 학문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차원에서의 용어 정비가 아니라 다른 학문과의 적극적 연계가 가능한 전문용어의 정리가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제 과학 기술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서 사회적 실천과 공공 정책, 정치적 여러 사안과도 맞물려 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용어상에서 오는 혼란을 청산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학술의 발전, 나아가 우리 국어의 통일성과 명료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 구축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외 연구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가사업으로서 미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과학 기술 번역이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과학기술의 최근 동향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의 교육 패러다임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투자와 시설 투자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기술을 전수하고 해외에 우리 기술의 발전을 알리는 ‘전문 과학 기술 번역청’을 신설하여 미래 국가 기술산업의 다변화와 신산업 개척의 기반으로 삼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분야별 전문용어 정보 자원 융합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정보들을 운영하고 산업기술과 연계 가능한 정보 시스템의 통합이 필요하다. 첨단 연구개발 환경의 요구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지식 정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네이처’와 ‘사이언스’와 같은 학술지는 첨단 과학 지식을 소통시키는 출처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대한 한국인의 접근성은 영어 원어민들에 비해 미약하며 언어 해석적 문제로 인해 우리 과학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전문 분야의 지식은 원어로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학문 분야가 조금만 범위가 넓어져도 어떤 분야에서 소통되는 학술 용어와 개념은 원어로 소통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연구자들이 참고할 것은 자신의 분야만의 전문 지식이 아니라 인근 분야 혹은 더 폭넓은 분야에 걸친 지식들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모국어로 사유하고 도구화 가능한 지식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면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지식의 창출은 어려워진다. 또한 첨단 지식의 번역은 다음 세대의 양성을 위해서 모국어로 유통

되는 지식의 수준을 올리는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한국어가 첨단 지식을 다루는 데 제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 언어는 문화 선도적 기능을 갖기 어려워지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력에게도 한계로 작용한다.

용어 정비 작업을 통한 핵심 분야의 전문 학술 도서의 신속한 번역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 자체가 우리의 문화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영어권의 문화적 식민성에서 탈피하는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자신의 연구 논문을 쓰는 일 못지않게 현재 자신의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첨단 지식을 번역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러한 작업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대중과 소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문 기술 번역사를 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고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첨단 지식의 제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분야의 학자들 간의 융복합이 시도 될 것이며, 일반인들도 최신 과학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과학기술의 혁신과 응용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6. 결 론

이제 우리에게 자동차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공학 기술 발달이 가속화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 용어도 일반인을 위한 용어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학이나 과학 기술 용어를 우리말로 개념정립 단계에 이르렀다. 선진 기술에 대한 용어가 없다고 그리고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외래어로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번역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주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물리학회나 화학회처럼 학회 차원의 접근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문용어 표준화 사업의 확장과 더불어 이러한 사업을 국가가 미래 산업 기술 발전과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연

구를 위한 기폭제로 작동하기 위한 전문 용어 전담 기구의 설치와 신속한 번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 용어는 학술 언어이자 일종의 직업 언어이기 때문에 실제 교육이나 산업 현장에서 더욱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껏 전문 용어는 특수하고 한정된 집단의 화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로만 이해해 왔지만 이들 전문 용어는 우리 언어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의 절반가량이 전문 용어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 용어가 우리말의 어휘단위라기보다는 전문적인 개념을 지칭하는 명칭이나 도구로만 인식된다면 학문분야별 간극을 매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행정 부처에 용어 전담반을 만들고 표준 용어 목록을 제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언어생활에 용어가 정착되고 그 사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전문 용어에 관한 심의는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된 것 이외에 이렇다 할 것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외래어 표기법을 심사하는 기관에서 더 나아가, 전문 용어에 대한 관찰, 조사, 심의하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전문 용어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인식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과학기술의 연구와 응용에 대한 정책, 기획 관리 및 영향 평가 등에 필수적인 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에 이러한 전문용어 번역 인재 양성 교과목 부분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후 기

이 연구는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학제간 융합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음(NRF-2011-372-G00001)

References

1. M. W. Lee, 2001, "Empire of Korea",

Daewonsa, p. 76

2. http://211.239.124.1/bbs/board.php?bo_table=trial
3.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2005, "Dictionary of Automotive Engineering", Autobooks.
4. H. J. Park, 2007, "Standardization study of science and technology Academic term",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5. S. J. Ko, 2007, "Study of terminology :summary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Thaeaksa.
6. K. S. Choi, 2005, "Development of terminology in the 21st century Sejong plan", KAIST.
7. H. J. Park, 2007, "Standardization study of science and technology Academic term",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8. <http://www.kps.or.kr/home/kor/morgue/dic/default.asp?globalmenu=6&localmenu=2>
9. <http://www.kcsnet.or.kr>
10. 1997, Language studies dictionary, Mungchiseojeom.
11. Y. X. Huang, 2007, "Standardization of terminology in China",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
12. K. H. Song, 2005, "Native language purification of France : Around the development of terminolog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13. H. H. Kang, 2011, "Study of activation measures and standardization system establishment of terminology", Ministry of Culture, Sports& Tourism.
14. <http://ec.europa.eu/eurodicautom/Controller>